



남장현 기자의 피버피치

코로나 폭탄, 그라운드까지 한국 '플뿌리축구' 위태롭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는다. 전염병에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경제위기가 찾아오자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넘친다. 스포츠도 멈췄다. 축구 산업도 붕괴 조짐이다. 풍족해 보인 유럽축구는 오래 전 비상경계에 돌입했다. 한국 축구도 자유롭지 않다. 구조 전체가 붕괴 위기다. 그래도 지자체·기업 지원을 받는 K리그 구단과 대한축구협회는 아직 버틸 만하다.

진짜 문제는 플뿌리다. 초·중·고교 축구는 초비상이 걸렸다. 운동장 사용과 합숙이 금지돼 정상 운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좋은 학생을 위한 학업도, 훌륭한 선수를 위한 훈련도 기대하지 못한다. 현재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전국 학교들의 온라인 개학은 축구와는 거리가 멀다. 온라인 개강이 시작한 대학도 다르지 않다. 일부 대학은 아예 선수단에 휴가를 부여했고 과제로 낸 개인훈련 영상을 선수들이 커뮤니티에 띄우면 지도자들이 확인하고 원격으로 조언해주는 데 머물고 있다.

가뜩이나 취약한 급여 구조는 더 심각해졌다. K리그 산하 팀들을 제외한 다수의 학원축구 구상원들의 처우는 좋지 않다. 그나마도 학교가 직접 지도자의 인건비를 책임지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학부모 회비로 돌아간다. 물론 클럽축구도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아마추어 축구가 멈췄는데 급여를 지불해야 하는 시선이 있고, 실제 임금 삭감을 제안 받은 지도자들이 있다. 생활고에 임시 배달원 등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민하는 사례도 포착됐다. 유럽과 남미는 '투 잡'을 뛰는 유소년 지도자들이 적지 않지만 우리는 대다수가 축구에 매진한다. 또한 아마추어 대회 수당이 주 수입인 심판들도 큰 어려움을 호소한다.

최근 학원축구 사태조사에 나선 협회가 국가대표팀 파울루 벤투(포르투갈) 감독, 여자대표팀 폴린 벨 감독(잉글랜드), 정몽규 회장 등 임·직원들이 반납한 급여로 조성한 3억 5000만원의 '축구상생지원금'을 수입이 끊긴 지도자·심판 5000여명에게 분배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상급학교 진학, 프로 진출을 통한 인재 수급 및 스카우트 시스템도 위태롭다. 대개 5~6월이면 입학과 입단 등이 사실상 마무리됐는데 상반기가 통째로 날아간 올해는 마땅한 평가 기준이 없다보니 지도자와 선수, 학부모들의 걱정이 대단하다. 선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협회나 한국프로축구연맹 차원의 스카우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축구인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모두를 힘겹게 만든다. 항상 우리 곁에 있던 스포츠와 축구의 소중함을 알게 된 계기도 됐다. 어려움을 잘 극복해 위기가 기회라는 걸 보여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yoshike3@donga.com



이-이 GK형제 “형제애는 잠시 접어둬”

(형 이범영·동생 이범수)

같은 무대 다른 포지션...맞대결도 기대 전주성 지키는 GK 홍정남-DF 홍정호 상무 이창근-안산 이창훈 판박이 형제 별 꿈꾸는 제주 이동희-이랜드 이건희

유전자는 속일 수가 없다. 한 배에서 나온 형제라면 외모는 물론이고 취향도 엇비슷하다. 운동능력도 마찬가지다. 한 쪽이 뛰어난 운동신경을 갖고 있다면 다른 쪽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형제 운동선수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이유다. 2020 시즌 K리그에서 함께 그라운드를 누빌 형제 선수들은 누가 있을까.

전북 이범영(31)과 강원 이범수(30)는 '골키퍼 형제'다. 형제가 같은 무대 같은 포지션에서 뛰는 건 드문 일인데, 특히 K리그라면 더욱 그렇다. 2008년 부산에서 프로에 데뷔한 이범영은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 2014년 브라질월드컵, 2015년 동아시아컵 우승 등 경력이 화려하다. 이범수는 2010년 전북에서 프로에 데뷔했으나 쟁쟁한 선배들에 밀려 이렇다 할 기회를 잡지 못했다. 서울이랜드, 대전 등을 거친 뒤 2017년 경남의 주전 수문장으로 나서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범수는 그 해 승격의 일등공신으로 활약하며 K리그2 베스트11에 뽑혔다. 아직 이들 형제가 한 경기에서 맞대결을 벌인 적은 없다.

골키퍼 홍정남(32)과 수비수 홍정호(31)는 전북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다. 홍정남은 2007년 전북에 데뷔한 이후 군복무(상주) 기간을 제외하면 원 클럽맨이다. 2010년 제주에 입단한 홍정호는 아우크스부르크(독일), 장쑤 쑤닝(중국)



홍정남(형·왼쪽)-홍정호 형제

등을 거쳐 2018년부터 전북에서 뛰고 있다. 그간 임대 신분이었던 홍정호는 올 시즌을 앞두고 완전 이적했다. 형제는 전북에서 두 시즌을 보내면서 2018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서 한 경기를 같이 뛰었다.

상주 이창근(27·상주)과 안산 이창훈(25)은 한눈에 봐도 형제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닮았다. 2018년 이창

근이 몸담고 있던 제주에 이창훈이 입단하며 주목을 받은 가운데 주전 GK 이창근과 달리 수비수 이창훈은 별다른 기회를 잡지 못했다. 이창훈은 2018년 여름 안산으로 이적한 뒤 출전 수를 늘렸고, 이후 두 형제 모두 각 팀의 주전급 선수로 활약했다. 올해 상무에 입대한 이창근은 K리그1 상주에서, 이창훈은 K리그2 안산에서 뛰는



이동희(형·왼쪽)-이건희



이범영(형·왼쪽) 이범수



이창근(형·왼쪽)-이창훈

제주 이동희(24)와 서울이랜드 이건희(22)도 K리그 최고를 꿈꾸는 형제다. 이동희는 2018년 제주에 입단한 3년차 수비수다. 두 살 터울인 이건희는 올해 신인으로 서울이랜드 유니폼을 입었다. 이건희는 지난해 대학리그(U리그) 4권역 득점왕 출신이다. 둘은 한양대 재학 시절 함께 팀의 주축 선수로 활약하기도 했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꼴찌는 잊어라...정정용 체제 '조직력 축구' 나가신다

K리그 전력 프리뷰 ㉔서울 이랜드(골)

2년 연속 최하위 이후 새 감독 교체 정 감독, 조직·공수 균형·템포 강조 "선수들 피지컬·기술 등 한단계 성장"



K리그2 서울 이랜드FC에게 2019년은 지우고 싶은 시간이다. 쓰라린 시련과 아픔이 시즌 내내 이어졌다. 정규리그 36경기에서 고작

5승(10무21패·승점 25)을 따내며 전체 10개 팀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렀다. K리그2에서 2년 연속 꼴찌를 찍은 것은 서울 이랜드가 최조라 아쉬움은 더욱 짙었다.

부진의 이유는 다양하나 유난히 안팎으로 험악했다. 특히 안방을 안방처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은 치명적이었다. 구단 창단 때부터 사용한 잠실올림픽주경기장이 전국체육대회로 인해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면서 선수단은 한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다. 임시 연고로 삼은 천안시의 지원은 든든했으나 사실상 거의 모든 여정을 마치 원정처럼 준비하느라 피로도가 상당했다.

하지만 마냥 아쉬운 과거만 곱씹을 수 없는 노릇. 2020 시즌 화두를 '희망'으로 잡은 서울 이랜드는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물론 많은 변화가 따랐다. 지난해 여름 폴란드에서 끝난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한국축구의 역사적인 준우승을 일군 정정용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기며 변화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선수단 역시 큰 폭의 물갈이가 있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 원기종과 중앙 미드필더



K리그2 최초 2년 연속 꼴찌. 서울 이랜드FC에게 2019년은 아쉬울만 가득했다. 올해 초점은 자연히 '희망'에 맞췄다. 지난해 FIFA U-20 월드컵에서 한국의 준우승을 일군 정정용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기며 색인에 나섰다. 3년 내 승격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이랜드 선수단. 사진출처 | 서울 이랜드 페이스북

●2020시즌 서울 이랜드FC 예상 라인업



콤비 김민균(주장)~허범산, 왼쪽 풀백 서경주 정도를 제외한 라인업 다수의 얼굴이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평균 연령대가 24.3세로 떨어졌고, 그간 크게 성공하지 못한 젊은 피들을 수혈해 간질함을 입혔다.

정정용호는 3단계 동계훈련을 진행했다. 전남 목포에서 몸을 만든 뒤 태국 춘부리에서 2차 강화훈련에 나섰고, 제주 서귀포에서 세부 정비에 임했다. 훈련 풍경도 확 바뀌었다. 다양한 영상과 데이터를 선

수들과 공유해 눈길을 끈다. 정 감독과 선수들은 훈련 틈틈이 주요 장면들을 TV 스크린으로 보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토론한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이들이 점차 자신의 주장을 과감히 펴는 모습에서 일방통행이 아닌, 수평적 리더십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정 감독이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조직력과 공수 균형, 템포다. 경기당 한 골을 간신히 넣긴 빈약한 화력(43골), 지나치게 허술한 뒷문(71골)으로 '잘 풀리지 않' 팀 이미지를 확실히 짚었다.

"질적으로 우수한 팀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에 많이 중점을 뒀다. 피지컬 발전을 이루려면 많은 분석과 스포츠 과학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대축구는 체력과 체력을 모두 갖춰야 한다. 영상 분석으로 디테일을 가미했다. 선수들이 골바로 각자의 문제를 알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했다. 선수들의 피지컬과 기술적인 부분이 성장했다고 본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어도 서울 이랜드는 '3년 내 서울 데리'를 목표로 묵묵히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코로나 퇴치 팬드 만든 선수들 "EPL 이유 있는 연봉 삭감 거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상대로 최전선에서 싸우는 영국의 국가 건강 시스템(NHS) 지원을 위한 팬드 조성을 결심했다. 코로나19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중된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제안한 연봉 삭감안을 거부했던 선수들이 그 이유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9일(한국시간) "프리미어리그 소속 선수들이 NHS 자선 단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막아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NHS를 직접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다. 토트넘의 해리 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마커스 래시포드 등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공개하고, 동참의사를 밝혔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연봉 삭감안을 제시한 구단 측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개인 연봉 삭감이 코로나19를 퇴치하는데 사회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빅리그 프로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연봉을 삭감하고 나선 것과는 다른 기류여서 일부에서는 의구심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이 연봉 삭감을 반대한 이유가 이번 팬드 조성으로 확실히 드러났다. 잉글랜드 축구를 대표하는 레전드 개리 네케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선수들이 대단한 결정을 했다. 자랑스럽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영국 NHS 관계자도 "선수들의 결정이 많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반가움과 고마움을 표시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